

# 정책도 바꾸는 슈퍼개미... 대주주 요건·신용이자율 재검토

## 달라진 개미의 위상

8일까지 개인투자자 57조 순매수  
올해 증시반등 개미 매수에 기인  
금융계, 개미 불만 적극수렴 대응

국내 증시에서 개인투자자(개미)의 위상이 달라졌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급락했던 증시에서 개미가 '구원투수'로 떠오르면서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과 증권업계는 개미들의 불만을 적극 수렴, 대안 마련에 분주하다. 대주주 요건 완화, 신용대출 이자 인하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12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일까지 개인투자자는 국내 증시(코스피+코스닥)에서 57조7707억원 규모를 순매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조7762억원을 순매도한 것과 대조적이다. 올해 증시 반등은 개미들의 적극적인 매수에 기인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 ◆ "대주주 요건 완화 검토"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들고 있으면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돼 내년 4월부터 양도차익의 22~33%(기본 공제액 제외, 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대주주 요건'이 수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해당 기준이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지면서 대주주 요건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정준칙 적절성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피하려는 매물이 증시에 흘러나와 주가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실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주주명부 폐쇄일) 기준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으로 보유 중인 주주 수는 총 8만861명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 금액은 41조5833억원으로 전체 개인투자자 보유 주식 총액(417조8893억원)의 약 10%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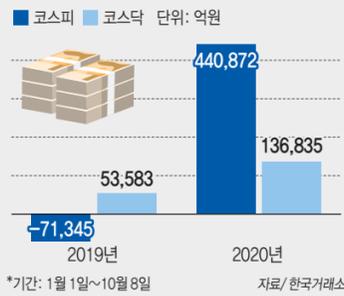
이러한 우려가 나오자 "대주주 요건 수정은 절대 없다"며 강경했던 기획재정부가 완화된 입장을 내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족 합산'에서 '인별 합산' 방식을 고려한다고

밝힌 것. 대주주 요건은 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합친 금액이 기준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인별 합산'도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주초 법안을 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과 지난주 법안을 제출한 같은 당 류성걸 의원의 안은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으로 그대로 두고 가족합산도 폐지하는 방안이 골자다.

여당 대표인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2년 후면 (주식) 양도소득세가 전면 도입되는 만큼 대주주 요건 완화는 달라진 사정에 맞춰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2년 뒤에 새로운 과세 체제 정비에 힘쓰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많다"

## 개인투자자 순매수 규모



고 했다. 대주주 요건 완화 또는 폐지는 여야가 공통된 입장을 보이는 만큼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 ◆ 증권사 '신용이자' 속속 하락

증권사가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신용이자율도 하향 조정된다. 신용이자율도 16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증권사가 제공하는 금리가 과도할뿐더러, 명확한 기준도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현재 증권사 신용공여 금리는 ▲30일 이하 단기 대출은 연 3.9~9.0% ▲31일 이상 90일 이하는 연 4.9~9.5% ▲91일 이상은 5.4~11% 등으로 회사마다 금리 산정 방식도 다르고, 금리 차이도 크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는 오는 21일 '금융투자협회의 대출 금리 산정 모범규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금투협의 모범규준에 따라 이자율을 산정하고 있는데 해당 모범 규준은

조달금리와 가산금리를 구분한 뒤 각 회사가 '합리적 기준'에 따라 산정하라고만 되어 있어 사실상 '깜깜이' 금리 산정이 이뤄지고 있다.

모범규준 개정으로 증권사는 대출금리 재산정 결과를 금융투자협회에 매월 보고하고, 증권사별 기준 금리 수준과 사전에 정한 기준 금리 산정방식을 공시해야 한다. 증권담보대출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속속 신용거래용자 금리를 낮추고 있다. 교보증권은 이달 19일부터 신용거래용자 금리를 0.7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앞서 미래에셋대우·삼성증권·대신증권이 신용거래용자 금리를 인하했고 NH투자증권·이베스트투자증권·하나금융투자는 이달 중 금리 인하에 나설 예정이다. 메리츠증권은 11월 9일부터 0.2~1%포인트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다른 증권사들도 내부적으로 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B증권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의 세전이익(별도 재무제표 기준) 중 신용공여(신용이자, 예탁증권 담보 용자 등) 이자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기준 6.4~44.1%에 달했다. 증권사별로는 키움증권 44.1%, 미래에셋대우 39.3%, 삼성증권 33.9%, NH투자 28.3%, 한국투자 17.5%, 메리츠 6.4% 등이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 넉달만에 연기금 5兆 매도... "증시 급상승에 디커플링 심화"

## 기관 매도 언제 그치나

개인투자자 막강한 수급 주체 부상  
"장세 개인위주... 연기금 영향 적어"

지난 넉 달간 국내 주식시장에서 5조 원 가까이 팔아치운 연기금이 매도세를 계속 이어갈 지 관심이 집중된다. 국내 주식보유 비중을 상당히 낮췄을 것으로 추측되는 만큼 기계적인 매도세를 멈출 수 있다는 긍정적 의견도 나온다. 거래대금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확대된 가운데 개인투자자가 막강한 수급 주체로 부상한 만큼 연기금의 막강한 영향력은 이전 옛날 얘기라는 목소리도 있다.

### ◆ 실적株도 넉 달 동안 4조8200억 매도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초부터 지난 8일까지 기관투자자는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3조9134억원 어치의 주식을 팔아치웠다. 이 가운데 연기금은 1조2751억원 규모를 순매도하며 금융투자(1조5290억원)와 투신(8267억원)과 함께 주식을 가장 많이 판 것으로 나타났다. 3조6999억원어치를 사들인 개인투자자와 대조된다. 이 기간 코스피 지수는 1.80% 오르는 데 그쳤다.

한국거래소가 구분하는 투자자 분류상 연기금은 연금, 기금, 공제회와 함께 국가, 지자체 등을 포함한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교직원공제회, 군인공제회, 행정공제회, 우정사업본부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 《연기금 순매수 상위 10종목》 단위:원

종목	순매도 금액	국민연금 지분율(%)
네이버	2468억	12.84
LG화학	2219억	8.98
삼성전자	1731억	9.76
현대차	1124억	8.89
SK텔레콤	911억	11.77
카카오	899억	9.9
SK이노	819억	11.17
한화솔루션	772억	10.99
KT&G	554억	12.87
LG이노텍	498억	12.06

지난 9월부터 이달 8일까지. 지분율 지난 2분기 말 기준 /한국거래소

우수한분기 실적이 예상되는 종목들도 매도 대상이었다. 같은 기간 연기금이 가장 많이 판 네이버(2468억원)는 역대 최고 수준의 3분기 실적이 전망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네이버의 3분기 실적 전망치는 매출 1조8520억원, 영업이익 2787억원으로 전년 동기(매출 1조6648억원·영업이익 2021억원)보다 각각 11.2%, 38%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다음 많이 판 LG화학(2219억원)과 삼성전자(1731억원)도 역대 최고 수준의 3분기 실적이 예상된다. LG화학은 이미 잠정 경영실적 발표를 통해 3분기 영업이익 9021억원으로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대체로 국민연금 보유 비중이 높은 대형주들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2분기 말 기준 네이버 12.84%, LG화학 8.98%, 삼성전자 9.76%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 외에도 연기금이 매도한 상위 10개 종목 중 6종목이 국민연금의 지분 비율이 10%를 넘어섰다.

연기금의 국내 주식(코스피+코스닥) 매도는 지난 6월부터 시작했다. 올해 6월 7844억원을 팔아치운 후 월별 매도 규모를 늘렸다. 7월에 1조1007억원 규모를 내다 판 후 8월에 1조6257억원 어치를 순매도하며 연간 최대 규모의 팔자세를 기록했다. 지난달에는 그보다 소폭 줄어든 1조3074억원 규모를 팔았다. 이렇게 네 달간 판 주식 매도량은 4조8182억원에 달한다.

연기금의 매도는 예견된 수순이었다. 연기금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의 경우 올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이 17.3%였으나 지난 7월 말 기준 실제 보유 비중은 18.2%였다. 목표치보다 0.9%포인트나 넘어선 이상 목표 비중 달성을 위해 초과분 매도는 불가피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과 퇴직금 등을 운용하는 연기금 입장에선 가격이 오르면 무조건 팔 수밖에 없다. 수익률 보존이 최우선 가치이기 때문"이라며 "최근의 가파른 매도세는 증시가 급격히 상승해 실적과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 심해졌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 ◆ 연기금, 저금리에 위험자산 높인다

그래도 증시에 반가운 소식도 있다. 글로벌 자산보유자들이 주식 비중을 늘려가는 추세란 것이다. 저금리 기조가 길어지며 위험자산을 많이 편입할 수밖에 없어서다. 송승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연기금과 국부펀드가 지난 분기 보여준 대량 매도세가 해당 기관들의 장기적 투자 추세라고 할 수는 없다"며 "리밸런싱으로 인한 단기적 비중 축소가 있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주식 목표 비중이 높아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2025년 말까지 위험자산을 65%까지 늘릴 예정이다. 지난 7월 말 기준 국민연금은 국내주식 18.2%를 비롯해 해외주식(22.8%), 대체투자(11.8%)까지 총 52.8%를 위험자산에 배분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해외주식 비중을 늘려가는 추세지만 전체적인 위험자산 편입 비중을 높인다면 국내주식 역시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표 기관투자자로서 증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연기금이 이전 예견됐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연기금 매매에 따른 지수의 추가 변동 가능성이 작다는 얘기다.

이경수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막강한 힘으로 증시를 좌지우지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 장세가 개인 위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연기금 매도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송태화 기자 alvin@

## 증시 떠나는 외국인



12일 오후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2391.96)보다 11.77포인트(0.49%) 오른 2403.73에 마감했다. /뉴시스

## 외국인, 주식매도 확대 채권 8개월만에 순회수

지난달 외국인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매도규모를 더 늘렸다. 이와 함께 채권 시장에서도 8개월 만에 순회수로 돌아섰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 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2조5480억원을 순매도했다. 지난 8월 매도 우위로 전환한 이후 매도세가 이어졌다.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각각 2조5390억원, 90억원 규모로 팔아치웠다.

지역별로는 유럽(9000억원)과 미주(5000억원) 및 중동(1000억원)에서 순매수한 반면 아시아(4조3000억원)에서 순매도를 나타냈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규모는 598조4000억원이다.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3%다.

외국인은 9월 중 상장채권 8조3570억원을 순매수했지만 만기상환 8조3880억원의 영향으로 총 310억원을 순회수했다. /안상미 기자